

원희룡 장관, “장시간 기다림으로 출퇴근 지치지 않도록 광역버스 신속 공급”

- 3일 사당역 퇴근길 방문하여 광역버스 승객들과 소통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3일(화)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사당역 인근 정류소를 방문하여 퇴근길 광역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,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국민들과 소통하였다.
- 퇴근길 광역버스 대기 중인 국민들과 국토교통 청년정책 위원단*은 수도권 출퇴근 애로사항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였으며, 원 장관은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.

*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족(22.9.)

- 원 장관은 “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분들은 매일 출퇴근으로 최소 3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데, 그마저도 장시간 긴 줄을 서면서 눈앞에서 버스 몇 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,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지쳐서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하소연은 교통이 고통이라는 의미로 와 닿는다”라면서,
- “국민들이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광역버스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한편,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‘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’를 대폭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버스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·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소 쉼터, 환승센터를 구축하고, 대기줄을 헛갈리는 일이 없도록 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- 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, 시설 개선과 더불어, '25년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준공영제 노선을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며,
 - 지하철 9호선과 같이 하나의 노선에서 주요 정류소에서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을 도입하는 '일반광역버스 급행화'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광역버스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- 원 장관은 '22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'광역버스 1·2차 입석대책'의 성과와 관련하여, "작년 6월 대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*를 352회 이상 확대하고, 대용량 2층 전기버스 35대를 신규 투입하여, 출퇴근 시간에 18,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"고 밝혔다.
 - * (6월) 5,865회 → (9월) 6,008회 → (10월) 6,030회 → (11월) 6,184회 → (12월) 6,217회
 - 다만, "최근 일부 운송업체의 입석 운행 중단으로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일부 승객들이 여전히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다"라면서,
 - 이를 해소하고자 "3월 이전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218회 이상 추가 확대하고, 2층 전기버스 40대를 투입하여 12,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"라고 강조하였다.
 - 이를 통해, 출퇴근 좌석 수는 총 30,000석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.

2023. 1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